

차별화된 전문가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차별화된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다양한 리스팅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에 맞는
인컴 프라퍼티 다수, 상업용 투자
건물 등 리스팅 다수 있습니다.

(949) 501-8555 Leah Ivy Chang

현대·기아, GM·벤츠·BMW와 '충전 동맹'

현대차와 기아가 BMW,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충전 동맹'을 결성한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를 7개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 LA 지역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shutterstock

이 충전소는 모든 전기차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여름에 미국에서 첫 충전소를 개장하고, 이후에는 캐나다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직접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것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충전소 부족이기 때문이다. 최근 GM과 메르세데스, 포드, 닛산, 리비안 등이 테슬라의 고속 충전소 '슈퍼차저' 2만2천여 곳을 부분 사용하기로 계약하는 등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집값 넉 달째 상승
…공급 부족 여파

▲ 매물 부족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년여간 초강경 긴축을 했음에도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이 넉 달 연속 반등했다.

지난 25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5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한 달 사이 평균 0.7% 올랐다는 의미다.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그 직전까지 미국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한 집값은 0.5% 내렸다.

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0.1%)를 제외하면 모두 전월 대비 올랐다. 뉴욕시(1.8%), 오파하이오주 클리블랜드(1.7%), 미시건주 디트로이트(1.6%),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1.5%), 일리노이주 시카고(1.4%)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뛰었다.

그러나 현재 상승장은 수급 뒤틀린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연준 긴축 탓에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7%대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주로 3%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매수하려면 두 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탓이다.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연준은 지난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5.25~5.50%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 회복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이어 왔다. 특히 지난

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한풀 가라앉고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완만하게 돌아서며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조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이번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정례회의 후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FOMC) 회의에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상담
문의
Charles Lee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집/커머셜/오피스/창고/비즈니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Agents/ Brokers 환영합니다!!

